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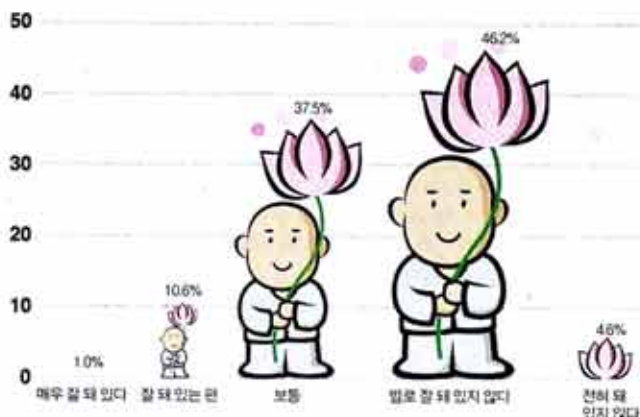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정보화인식

우편·면접설문 분석결과

정보네트워크 구축 불교계 발전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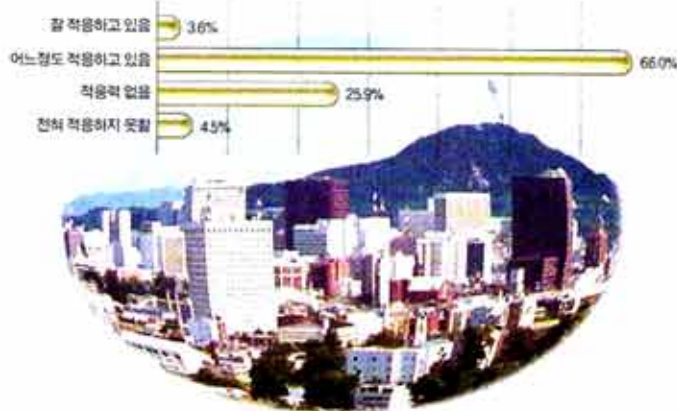
▶ 불교계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



▶ 정보화의 사찰업무 개선 기여도



▶ 불교계의 정보화 사회 적응 정도



불교계 정보화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불교계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컴퓨터 사용, 중무관리 프로그램 사용, 인터넷 접속, 홈페이지 보유,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사찰(단체)을 운영하는 소임자들의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 1,146명 가운데 50.8%(583명)가 비교적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37.5%(439명)가 보통이다. 11.6%(133명)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도의 고령화, 스님의 정보화 인식 부족 등이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장년층 포교 강화 등을 통해 불교계도 정보사회에 적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 정보화가 사찰단체의 업무와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1,138명 가운데 48%(546명)가 잘 안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36.5%(415명)가 보통이다. 15.5%(177명)가 관련이 적거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찰단체의 업무처리가 원활해지고 관련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 정보화가 사찰단체의 업무를 어느정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찰단체의 업무가 개선된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본 조사

단체나 기관의 자율적 차원' 4.9%(53명), '교육기관 중심' 4.5%(49명), '불교 언론 기관 중심' 3.6%(39명), 기타 0.9%(10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각 사찰단체의 구성원들이 의도하고 있는 불교 정보네트워크가 종단 차원을 넘어서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려는 의견을 알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한 라인의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과 가치의 공유와 더불어 각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그리고 업무의 공유화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교 정보네트워크의 다양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스님 등 전산화 마인드 대체로 미흡 사찰대표자 무관심·구성원 몰이해·신도 고령화가 원인 운용주체·전문인 양성 서둘러야 할때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 1,203명 가운데 89.1%(1,072명)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불교 정보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37.8%,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24.8%, '정보 공유' 23.9%, '업무의 효율성 제고' 10.6%, '소속감 강화' 2.4% 등으로 나타났다. 불교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포교라는 종교적 목적의 이용을 전제조건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사람들이 불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포교정보가 잘 교류되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불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거시적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80명 가운데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차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56.5%(610명)로 절반이 넘었고, '종단 차원' 21.9%(237명), '교구 본사에서 소속 사찰을 중심으로' 7.6%(82명), '유관

나갈 수 있는 운영 주체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1,111명 가운데 69.6%(783명)가 잘 또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30.4%(338명)가 적응력이 없거나 전혀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것은 각 사찰단체에서 정보사회에 살아가는 적응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불교계의 정보화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종단 및 사찰을 운영하는 지도부를 포함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찰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 마인드를 갖는 것이 불교계 정보화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 결성 추진

조계종·교계 언론 3사 주축... 각종단·단체 합류

불교정보화실태조사는 조사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상을 파악하고 난 뒤에는 발전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개별 종단적으로 추진되거나 법안 혹은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극적인 정보화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재정적 뒷받침이 빈약해

문자가 주축이 되어 (가칭)불교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6월 4일 첫 모임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과 단체 15곳이 합류했다. 현재는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

실무운영위 구성 발전방안 등 논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별적 정보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계 전체의 정보화 공익사업을 추진할 거대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지난 5월 조계종 총무원과 실태조사를 주관한 불교방송과 불교TV, 현대불교신

고 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올가을 정식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불교계의 정보화와 관련, 각종 연구와 공익사업의 시행 등 포괄적인 영역을 활동 범위로 삼고 있다. 향후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종단을 계속 영입해 회원단체도 늘어나갈 방침이다.

불교계 전반 인프라 구축 시급

역사·문화에 용해된 불교 새가치로 발전돼야

22개 단체 건의문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와 수석사 등 조계종의 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의 발간에 맞춰 '불교 정보화분야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불교계 정보화 사업에 정부와 불교 종단 및 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보고서 부록편에 실렸으며 동참한 단체는 모두 22곳이다. 건의문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발전지향적인 행보를 걸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4개항을 중심으로 구성됐

다. 첫째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용해된 불교의 자양분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에서 불교가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는 불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넷째는 불교의 정보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이 건의문은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정보화 교육과 인프라의 구축, 콘텐츠의 개발 보급 등 3단계 발전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CGN.co.Ltd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감" 및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살맛 나는 세상"에서 명강의 중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심성교정 및 목초액연구가 **류창열**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질병을 고치는 책

창(나)무 간질환·당뇨병·암·무좀·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의 놀라운 효능

제1장: 목초액이란 / 제2장: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목초액의 효능
제4장: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최신간 명강의 타이프 포함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나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낮게 한다!

飲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입-마음 < 부정-부패-독소-타칸 피-면역기능 저하-세포질병, 노화촉진 / 긍정-소화-영양소-맑은 피-면역기능 상승-세포건강, 젊음유지

값 13,000원

특전을 드립니다!
도서 구매자에 한해 하루 무료 우편 2회-4회
건강과 행복을 위한 목초액으로 하는
저자 무료공개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값 8,500원

도서는 전화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 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 전화 02)516-8939 팩스 02)516-8923 / 국민은행 754-21-0439-180 예금주: 김혜영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